

哲學에 影響을 끼친 科學者에 對하야(1)

金容權

우리가 哲學史를 通覽하고 그것과 科學과의 交涉에 對하야 其 事例를 求하면 참으로 枚擧하기 어려울 것이다. 지금 그 가운데에서 如何한 科學, 또는 科學者가 哲學에 影響을 미치게 하였으며 其 影響은 如何한 狀態를 보히고 있는지 잠간 考慮하여 보기로 하자. 그런데 材料는 主로 近世初로부터 現代에 이르는 西歐의 哲學史로부터 求하야 가기로 하되 行論의 順序로는 爲先 古代希臘으로부터 始作하기로 하여야한다.

何者오하면 大概 希臘哲學은 其 問題提出에 있어서도 또는 其 解釋內容에 있어서도 거의 全部가 後世에 範을 □한 것일 뿐만 아니라 其 思想形式에 있어서도 恒常 後世에 變容되는 것이며 科學과의 關係에 있어서도 스스로 其 樣式을 規定한 것으로 되어있는 까닭이다

希臘哲學의 精華로서는 누구나 『프라톤』과 『아리스토텔레스』의 二人을 을을 것이나 이 二人으로 말하면 또 同時에 後世 諸 哲學設의 二大 傾向을 □起한 것이매 兼하야 또 哲學科學의 關係에 있어서 兩□의 範型을 形成한 것이다. 普通으로 『프라톤』은 觀念論, 二元論, 理想主義 等の 祖라 하며 『아리스토텔레스』는 이에 對하야 實在論, 二元論, 現實主義 等の 源이라 한다. 이 點으로 보면 『프라톤』은 形而上學的 非科學的이며 『아리스토텔레스』는 經驗論的 科學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생각되나, 實際는 만드시 그러타고도 할 수 없다. 兩者가 모다 當時의 科學과 密接한 關係를 가지고 잇었고 『프라톤』의 所論에는 神話的 要素를 混入한곳이 만흐나 幾何學을 必須의 □備學科로한 點만이 아니라, 所謂 數□의 學에 잇어서도 여러 가지 卓援的 見解를 보히고 잇으며 『아리스토텔레스』가 醫家라는 父祖의 遺業을 超脫하야 自然科學, 더욱이 生物學의 素養이 깊엇든 바에도 不拘하고 一面 其 哲學設에 依하야 도로혀 後世 科學研究를 拘束한바가 잇엇든 것과 서로 對照되는 바가 잇었다. 卽 모다 科學을 超越한 哲學을 論하면서 兼하야 모다 科學과 關聯을 가지고 잇는거시다. 이 點에 잇어서도 또 後世의 哲學에 取하야

準據가 되는 것인데 그 科學과 關聯하는 바에 二種 樣式을 보히는 點이 더욱 注意를 惹起하는 것이다. 卽 『프라톤』에 잇어서는 數學, 物理學的 方面이 그 基礎가 되어 『아리스토텔레스』에 잇어서는 生物學的 進化論的 特質에 그 重要한 意味를 占有하여있다. 그러므로 往前者는 分析的 數理的이라 할 수 있고 後者는 分類的 論理的이라고 볼 수가 있다.

그와 같은 對立되는 敍述을 그것을 너무 徹底히 하면 그 中에는 幾多의 強辯的 解釋을 混함에 이르는 念慮가 잇지만 大體로 이에 數物과 生物學的의 그 科學型을 이 兩哲學型에서 認識할 수가 잇을 것이다. 그리고 이것이 또한 참으로 近世의 모든 哲學을 區別하는 標準이 되는 것이다.

卽 지금 이 兩者를 만일 哲學, 科學關係 上의 二型이라 하면 近世哲學史 上에 잇어서 우리는 爲先 十八世紀 末葉을 境界線으로 하여 이 兩者의 對立하는 바를 認知할 수가 있다. 詳言하면 十六世紀 以來 近世科學의 勃興에 잇어서 主位를 占有한 것은 數學, 天文學, 物理學을 비롯하는 바이며 그 影響은 延하여 十七世紀의 모든 思想에 及하여었는데 傳하여 十八世紀의 終局 十數年 頃으로부터 十九世紀에 이르러서는 生物學은 諸 學問의 中心觀念으로 되어왔다. 그리고 十九世紀 末로부터 二十世紀 初頭に □하여 이 兩型이 對立하여 存在하며 또 서로 消長하는 狀態를 呈하고 잇는 것이다.

近世의 學術은 調和하는 바와 같이 中世 敎□의 桎梏를 脫離하여 自由獨立의 精神에 依하여 古典을 解釋하며 自然을 研究하는 바에 其 端을 發하고 잇지만 古典의 事는 暫間 措置하고 自然研究에 잇어서 모든 사람의 □□을 끈 것은 天文에 關한 것에를 넘어 없었다. 卽 『프로레마이오스』의 地球中心 太陽運動의 天文說에 對하여 『코페르니커스』가 地動日中の 體系를 創業한 것은 實로 天地 二元 關을 □感하여 人文中心의 思想을 分碎하고 自然研究에 對한 思辨憶測의 學風을 排하고 觀察實驗의 方法을 導入한 것이었다.